

〈자료 1〉

李漢喆작 崔北肖像畫에 대하여

許英桓*

목 차

1. 崔北의 생애와 작품
2. 李漢喆의 생애와 작품
3. 崔北先生肖像

조선중후기의 산수화가였던 호생관 최북(毫生館 崔北, 1712-1786)의 초상화가 최근 세상에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초상화의 주인공인 崔北·초상화를 그린 李漢喆·초상화의 내용 등으로 나눠 썼다.

1. 崔北의 생애와 작품

최북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지금은 많은 논문과 저서가 있다.¹⁾

최북은 1712년(숙종38, 임진년) 서울에서 경주최씨 尙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한미한 중인 출신의 상여는 회계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하급관리(종8품)인 計士였다. 算官을 많이 배출

* 성신여대교수. 동양미술사

1) 지금까지 연구발표된 최북에 대한 글은 다음과 같다.

- 1946년, 윤희순, 이조의 정열화가
- 1948년, 김용준, 최북과 임희지
- 1983년, 허영환, 한국의 아웃사이더 崔北
- 1989년, 공석하, 최북이야기
- 1990년, 박희병,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 예인전의 연구
- 1991년, 유홍준, 호생관 최북
- 1991년, 홍선표, 최북의 생애와 의식세계
- 1991년, 박은순, 호생관 최북의 산수화
- 1991년, 송태원, 호생관 최북의 인물화
- 1994년, 리재현, 조선력대서화가편람
- 1996년, 이태호, 조선후기회화의 사실정신
- 1997년, 박은순, 금강산도연구

한 최씨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도 詩書畫를 잘한 최북은 살아있을 때 이미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1707-1769) 다음의 大家高品으로 손꼽혔을 정도로 이름을 날린 여항출신 직업화가 되었다.

최북의 시는 여항문인들의 시집인 風謠續選과 전통한시를 총정리한 大東詩選에 수록되었고, 글씨(書)는 草書와 半行으로 이름 높았다. 그림은 산수화와 인물화를 잘 그렸는데 중국 원나라때 산수화가 대치 황공망(大痴 黃公望, 1269-1358)·겸재 정선·현재 심사정·연개 허필(1709-1761)·능호관 이인상(1710-1760) 등을 존경하고 교유하면서 배우고 익혔다.

최북은 괴팍한 성격과 웃기는 일²⁾ 등으로 정열화가·기인화가·광화사(狂畫師)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수하다고 하겠다.

겸재산수화풍을 따랐던 최북은 겸재보다 36세 아래의 후배였기 때문에 20대 청년화가 시절에, 즉 1730년대에 겸재가 1710년에 그린 봉래산화첩·1711년에 그린 풍악산도첩·1734년에 그린 금강전도 등을 직접 보고 모사하고 畫技를 익혔을 것이다.

최북(본명 植·자 七七 聖器 有用·호 毫生館 居其齋 三奇齋 箕庵 星齋 坐隱 半月 奇翁 등)은 또 중국의 여러가지 화보(고씨화보·당시화보·십죽재화보·개자원화보 등)와 작품을 통해서 서울화단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남종화풍과 조선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실학사상과 실경산수화풍의 영향도 받으면서 호생관 자신의 회화실력과 사상을 풍부하게 했을 것이다.

74년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자기 눈을 찢러 병신이 되기도 하고 구룡폭포에서 자살하려고도 했지만) 조선의 금강산 등 명산을 두루 다녀 보았고, 중국(34세 때인 1746년)과 일본(36세 때인 1748년)도 갔다 온 호생관은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금강전경도(1742) 산수도(1748년에 3폭) 도담삼봉도(1749) 매화쌍치도(1751) 금강전도(1755) 미법산수도(1757) 설강도(1765) 하경도(1765) 송음관폭도(1765) 야회도(1766) 등을 기년작으로 남겼다. 또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그림으로는 금강총도(선면) 금강전도(일명 봉래선경전도, 황권) 표훈사도 한강독조도 풍설야귀도 수각산수도 등도 명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2. 李漢喆의 생애와 작품

호생관 최북의 초상화를 그린 회원 이한철(希園 李漢喆, 1808-1892)은 조선말기의 화가인데 특히 초상화를 잘 그렸다. 이한철은 자를 子常, 호를 希園·喜園·松石 등이라 했는데 畫員인 李義養의 아들이어서 어렸을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자신도 畫員이 되었고 또 御眞畫家가 되었다. 벼슬은 監牧官과 郡守를 지냈다. 38세때인 1846년에는 憲宗御眞圖寫의 主管畫

2) 신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점에 어느 정도의 열등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최북은 양반의 횡포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눈을 찢른 것과 금강산구룡폭포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일 등 여러 가지 기행과 일화가 많다.

師로 활약했으며, 44세때인 1852년에는 哲宗御眞을 그렸다. 또 1856년에는 哲宗御眞遠遊冠本을 그렸고, 1872년에는 高宗御眞의 圖寫에 조중묵·박기준·백은배·유숙·안건영·박용섭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한철의 대표작으로는 그림지도를 받았던 스승인 추사 김정희를 그린 金正喜影幀(보물 제547호)과 조만영초상, 산수화인 奇巖觀水圖와 訪華隨柳圖 등이 있다.

3. 崔北先生肖像

회원 이한철이 호생관 최북의 상반신을 그린 초상화의 명칭은 崔北先生肖像(紙本水墨淡彩, 66×41cm, 李元基소장)으로 되어 있다. 이 초상화는 소장가가 금년초에 공개한 것인데 초상화의 대가가 딸 많았던 명화가를 그린 것이어서 아주 귀한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한철은 최북보다 96년이나 늦게 태어 났고 그를 본적도 없기 때문에 이 초상화는 최북의 후손과 여러 노인들의 말을 듣고 그린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그림은 아주 사실적이고 감동적이다. 一毫不似是別人(터럭 하나라도 닮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이라는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은 조선장지에 그렸는데 160여년의 세월이 흘러 얼룩이 졌지만 한 가운데의 얼굴모습은 아직도 살아있는 듯 기운이 생동하고 있다. 제목과 한문은 가운데 오른쪽에 5행으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崔北先生肖像

先生號七七又三奇齋性品奇怪遊於金剛時到金剛九龍瀑天下崔北此地不死何爲北耶畫法東國最善云. 希園李漢喆寫又并題.

최북선생초상

선생의 호는 칠칠이었는데 또 삼기재라고도 하였다. 성품이 기괴하여 금강산을 놀러 갔을 때 금강산구룡폭포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최북이 여기서 죽지 않으면 어찌하여 최북이라 하겠느냐』고 하였다. (실제로 폭포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일화가 있다) 그의 화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 하였다. 회원 이한철이 그리고 아울러 글을 썼다.

모자는 길쭉한 망건이다. 호생관이 주인이었으니까 정자관이나 큰갓은 쓰지 못했을 것이다. 얼굴은 오른쪽을 보고 있는 모습(8분면)이나까 오른쪽 귀가 보이지 않는다. 귀눈코입 등이 큼직하고 얼굴이 길다. 수염(콧수염과 구렛나루가 무성하고 길다. 오른쪽 눈은 감겨 있다. 스스로 절러 실명했다는 얘기대로다. 양반의 횡포와 방자함이 꼴보기 싫어 『이놈의 세상 꼴보기 싫다』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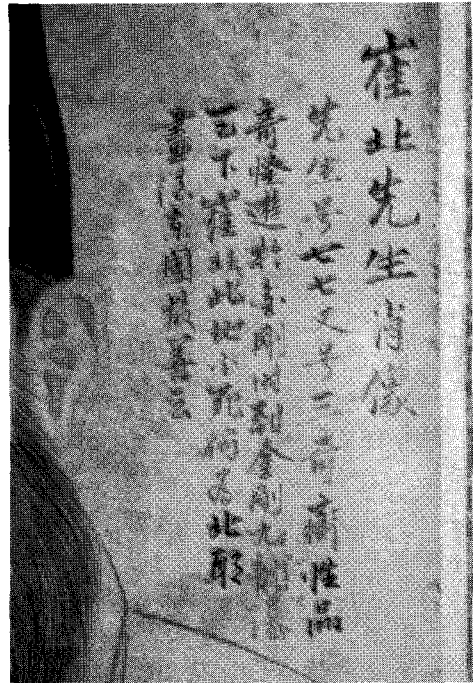
이 초상화는 안면묘사는 철저하고 세밀하게 한 대신에 상체는 몇 줄의 선으로 단순하게 묘사했다. 얼굴의 생김새와 왼쪽 눈 등으로 보아 속세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가득한 50대 사나이다.

조선시대 계급사회의 체제의 모순에 저항하고 좌절하면서 산 최북은 자기의 울분을 파격적인 시를 쓰고 행동을 함으로써 풀기도 했지만 언제나 아웃사이더였다.

어떻든 이 최북초상화는 기구한 한 화가의 생애와 계급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사진 1> 최북 초상화



<사진 2> 최북 초상화에 있는 글